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겔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벨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벨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세기 12:1~10]

여

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가졌던 별명과 비교해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도 영특해서 옛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선생님들을 골탕 먹입니다. 어느 여선생님이 교실에 갔다 오더니 화를 몹시 내요. 자기에게 붙인 별명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별명도 많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귀신 할망구 같다고 한다.”면서 아주 화를 내더라고요. 그 학급 애들에게 좋은 말로 야단을 좀 쳤죠. “애들아, 좋은 별명 많이 있는데 가령 백설공주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귀신 할망구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야, 백설공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분의 별명이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아니고 백설 먹은 공주라는 거죠. 아니 얼핏 들으면 백설공주 처럼 들리요. 본인은 속으로 좋아하는데 실상은 놀리는 겁니다. 요 녀석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죠. ‘백설공주’인지 ‘백설공주’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살짝 흘리면서 백설공주라고 하더군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지요.

대부분의 별명이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것일까요? 그가 이런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다 말씀 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한 부분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이름을 얻게 된 사건이 몇 가지 있죠?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 것.

그럼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을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맨 마지막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그건 아브라함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그런 신앙을 보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살아 보고 저렇게도 살아 보았는데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더라는 믿음이 말년에 가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위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입학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합격시키려고 치는 시험입니까?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을 나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시험을 쳐야 하거든 나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하나

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은 어떤 성격일까요?

교수님들이 “시험칠까요?”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조금만 미루시다” 하고 땡깡을 놓아요. 그럼 “일주일만 미루세요?” 하고 미룹니다. 시험을 언제 치르지요?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학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시험은 학생이 시험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 생애 초기에 그런 시험을 쳤으면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도 통과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적절한 때에 시험을 치르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마지막에 가서 그 위대한 신앙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음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나가 뭐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바랐다.

그것은 시비를 걸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군요. 이상하다 싶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물으십시오. 적어도 아들 문제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증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확신했더라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리가 없잖아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집에서 길러온 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이끝대로 믿지 않았던 증거가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떠나갔던 사건. 그것 또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할 때 흔히 잘 드는 예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자세히 한 번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서 바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가나안으로 떠나갔습니다. 순종을 잘 했다고요? 흔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 보파리를 찢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란에서 오래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말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먼 곳, 하란에서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얻었을까요? 낫선 타향에 가서 다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아무 고민도 없이 덜컥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명령이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고 있지요? 거기에 십표를 하나씩 찍어 놓으면

좋겠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본토,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면 고향이지요.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본적지가 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안 떠났지요. 그렇게 많은 친척은 아닙니다만 포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는 건너편 아파트에 계시거든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런 뜻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먼 여기에 와 계시는 분은 저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가요?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마십시오. 직장 따라왔거나 결혼해서 고향을 떠났거나 이것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 삶의 근거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라 하였는데 왜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 하란을 지나가면 국경을 넘게 됩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말이 달라지고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습니다. 떠날 때도 온 가족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족끼리 분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자” “뭇잡니다” 하다가 고향에 그냥 퍼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그냥 남았습니다. 가족간의 일치를 보지 못했죠.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그들이 왜 국경을 넘지 않고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또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여기만 넘어가면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제는 말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외국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웠다는 뜻이지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는 가야 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따라, 신랑 따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 곳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전부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역사입니다.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것과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메세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가인의 후손과 어울려 살지 말고 나오라고 불러낸 것이 셋의 후손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범죄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 해서 데리고 나와 버립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또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뭘 만드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 해서 불러내서 따로 떼어 놓은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앞으로 한번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염소와 양을 가려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갈라 놓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살기 좋았던 그곳에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선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를 따져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떠나야 할 곳인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든다면, 정말 행복하다면 누구 때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 남편 때문에 행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만큼 감사한 일이지만 그 행복이 과연 하나님에게 근

거를 둔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행복이 아니라면 사상누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든든하니까? 자식이 믿음직스럽고 돈 걱정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다른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보따리 싸서 아브라함처럼 먼 곳으로 훌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으로서 끝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서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기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하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시다.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의 도시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았던 곳입니다.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합쳐지는 곳이지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유명한 문명의 발생지나 도시는 대부분 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죠. 가나안요? 가나안은 물이 그렇게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땅에 어떻게 하고 살고 있지요?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막이요 산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사막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9절까지가 한 단락인 것 같은데 왜 10절까지 읽었겠습니까? 기근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왔더니 제일 먼저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닥쳐왔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땅에 가라고 하셨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곳에 왔더니 세상에 기근이 웬말입니까?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고생 안 해도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땅이 아닌데도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까? 기름지지도 않고 강수량이 풍부하지도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름지고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멋지게 산 것 아닙니다. 바로에게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한 번 했지요?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했지요? 이리저리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우합니까? 자식이 많은 것을 복으로 칠 그 시대에 자식 하나 없이 얼마나 오래 지냈습니까? 하나 낳기는 낳았는데 똑똑한 아들이예요 어리숙한 아들이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똑똑한 아들입니까? 어리한 아들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보신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삭이 신앙이 좋았구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보십시오. 이삭은 바보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늘그막에 겨우 하나 낳은 아들이 희미한 아들이었습니다. 하긴 이렇게 늙어서 낳은 아들이 똑똑할 턱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받은 느낌은 “이상하다. 창세기에 이삭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잘 한 것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순종 잘했다’ 이 얘기하시고 싶지요? 그러면서 똑똑한 여러분은 만약 아버지가 그런 일을 벌이면 총알같이 내 뺄걸요? 이삭은 정말 순종 잘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 순간에 그러고 있었습니까? 이삭이 어리숙합니다. 우물을 파 놓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재산 1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니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팝니다. 또 와서 뺏습니다. 또 물러갑니다. 몇 번이나 싸우지 않고 물러갑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어떠냐니까 ‘이해심이 넓다’ 이러데요. 거꾸로 물어보았어요. 만약에 당신 남편이, 깡패들이 재산 1호를 내 놓아라 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빼앗기고 왔다가 이튿날 또 다른 것도 뺏겼다 그러면 그 남편 보고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라고 하겠어요? 그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이해심이 많다고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속아넘어간 아버지잖아요. 전 어릴 때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됐어요. “왜 이렇게 어리한/어리숙한/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 놓았을까? 참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아들 하나 데리고 평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복된 삶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후로 이 땅에서 사라져 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평온한 땅이 아닙니다. 전쟁이 났다 하면 반드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유대인만큼 수난을 많이 당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 지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믿는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족 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또 있을까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있죠?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4장에 그 당시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아브라함이 전쟁 한복판에 끼어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으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자기 조카를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 근방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거주할 때입니다.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외국에서 들어온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이 좋게 지내자고 조약을 청해 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감지덕지지요. 내가 가서 예물을 많이 주고 사이 좋게 지냅시다 하여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왕이 직접 찾아와서 사이 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그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민 조건이 뭐였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건 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세상에 부족간에 혹은 국가간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것 보셨어요? 제발 거짓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어. 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벌은 자기가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잘 것 없는 아브라함을 상대로 왕이 찾아와서 사정사정 하면서 사이 좋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내거는 조건이 겨우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조건으로 사이 좋게 지내자 하면 꼭 그런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고 살 때에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릴 때 교육을 좀 잘못 받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처럼 살까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나사로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거지처럼 사는 것을 동경하지는 않더라도 부자처럼 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지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평평거리며 살아야지요.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아이들 만화 생각이 자꾸 나요.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만화를 읽는가 궁금해서 빼앗아서 종종 봤어요. 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구요. -그러나 요즘 만화는 참 문제가 많습다- 전투를 하다 보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잘 모르겠는데 방탄막이란 것이 주위에 쳐져요. 총을 쏘면 총알이 튕겨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쏜 사람에게 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 딱 튕겨 가지고 되레 자기를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 번 보세요.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니까 아브라함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나한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적인 말을 여러가지 들었습니다. “신앙문제로 우리 남편을 괴롭힌 사람치고 아직까지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멋진 말 아닙니까?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걸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이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힘든 고통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버려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순종하고 갔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입니다. 더 줄이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가나안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요즘은 좀 덜합니까? 숟가락, 밥그릇, 심지어 젓가락에 복 자 안 새겨진 것 찾기 어렵습니다. 온통 복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많이 쓰던 담장 무늬도 복이라는 글자에서 따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곳곳에 복 자를 써 두면 복이 들어옵니까? 우리 어릴 때 밥 먹다가 숟가락 흔들면 야단을 막 쳐요. 뭐라면서요?

복 나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밥 먹다가 다리를 흔들면 그것도 복 나간다고 야단쳤단 말이에요. 어디 앉으면 안되죠? 문지방에 앉는 것하고 복 나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은 복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문지방에 앉지 말고, 숟가락, 밥그릇, 옷에 온통 복 자 써 붙이고 밥 먹을 때 털지 않고 그래 먹으면 복이 들어오나요? 복을 애 쓴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는 거기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제목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2절 끝에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3절 뒤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은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복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위에 있으면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맞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곳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크게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복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보디발의 집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사회는 너무 머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복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나로 인해서 직장이 기쁨이 넘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복중에 가장 큰 복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도 큰 복입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먼 곳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가장 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만큼이나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사가 되니까 눈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가정, 나,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명을 좀 더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 나쁜 습관, 남의 알지 못하는 나쁜 버릇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고생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자체로 복이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행복하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안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참 많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차츰차츰 넓혀 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즐거운 삶이 아니라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왜요? 자기 닮은 사람

[2001.06.03]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1~10)

만들면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게 놔두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다 느끼신다면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십시오. 돈이 좀 들면 아낌없이 투자하셔도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이 정말 크고, 정말 좋은 것이라 싶으면 자꾸 나누십시오. 우리 효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